



[금융] 국내 금융그룹 혁신성장 팔 걷어 윈스톱 지원플랫폼 구축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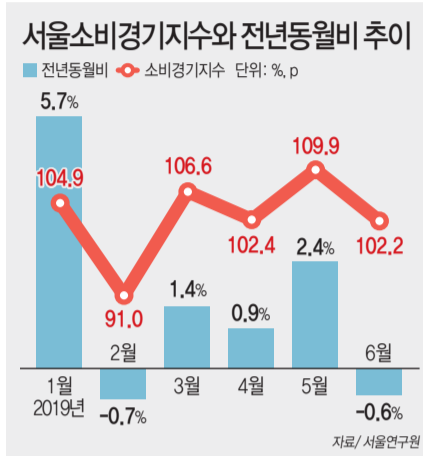
Life

[라이프] 이마트 물가안정 프로젝트 '에브리데이 국민가격' 1



6월 서울소비경기지수 0.6%하락 대형마트·홈쇼핑 소비 주춤

소매업·숙박·음식점업 소비 줄어 가전제품·정보통신 8.8% 증가



6월 서울소비경기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소비가 모두 줄었다.

서울연구원은 31일 '2019년 6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소비경기지수는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중심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월간소비지수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종합소매업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음식점 및 주점·커피전문점업의 내림폭이 확대됐다. 무점포소매는 9.6%, 가전제품·정보통신은 8.8% 증가했지만 지난달에 비해

오름폭이 둔화됐다. 백화점의 증가폭이 완화된데 대형마트의 감소폭이 확대돼 종합소매업은 2.8%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했다. 숙박업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8.4% 상승했지만 음식점업은 1.6%, 주점·커피전문점업은 3.5% 줄었다.

주점·커피전문점업의 소비부진은 커피전문점업의 증가세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의 소비 호조가 두드러졌다. 서북권과 동북권은 부진을 면치 못했고 동남권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도심권은 12.6% 상승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유일하게 올랐다. 동남권은 1.3%, 동북권은 2.8%, 서남권은 2.1%, 서북권은 9.5% 감소했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6월에는 서울의 소비경기가 다소 주춤했다"며 "일부 업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의복소매, 대형마트, 홈쇼핑에서의 소비 감소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호우주의보에 청계천 '출입 통제'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3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의 모전교가 출입 통제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2136호 입주자 모집

마포·서대문구 등 5개 지역서 모집 공공·민간 임대 청년층에 우선 공급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2136호(공공임대 319호, 민간임대 1817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하반기 모집공고 대상은 마포구 서교동 1121호, 서대문구 총정로3가 523호, 종로구 승인동 238호, 성동구 용답동 170호, 광진구 구의동 84호 등이다.

입주는 2020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준공 6개월 전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고 객센터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고가 났을 때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가 용도지역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

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7년 2월 사업계획을 최초로 승인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된 곳은 1만4280호(37개 사업)다.

현재 2만2000여호가 인가 절차 진행, 사업제안서 검토, 사업 준비 등의 단계에 있다고 시는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정책이고 실제 공급이 가시화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확고한 정책의지와 동력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과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 모든 女청소년에게 월경용품 보편지급”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32개 단체 선별복지서 보편복지로 전환해야

“서울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라!”

서울의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저소득층에만 선별 지원하던 것에서 나아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급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여성환경연대, 참고교육부모회 서울지부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1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제19조 6항의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31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지원 대상에서 '빈곤'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지급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가난을 증명

해야 하는 시혜적인 지급방식은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생리대를 지원받을 만큼 가난하다'는 사회적 낙인을 찍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서울시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데 연간 41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만 65세↑ 소지자 반납시 10만원 지원

경기도 시군 지자체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은 오는 9월부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60만여명(2017년 기준) 가운데 1.6% 정도인 1만명 정도가 올해 중에 면허를 반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비와 시비 지원금 10억원을 확보했다.

우선 올해 1만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3만7천명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추가경정예산에

서 도비 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맞춰 각 시군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며 시비 확보도 추진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0개 시군은 오는 9월부터 용인시는 10월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도는 전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8월 중 도와 도의회,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공단 등과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목동 빗물펌프장서 근로자 3명 고립

소방당국 잠수부·구조대원 현장 투입

31일 오전 폭우가 내려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배수시설 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3명이 고립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양천소방서는 이날 오전 8시 24분께 양천구 목동의 빗물펌프장 저류시설 수로의 유지관리수직구 인근에서 작업자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대원들은 구조작업에 나서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전 10시 26분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 구모 씨를 구조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구모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 2분께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구 씨와 함께 작업하던 시공사 직원 안모 씨와 미안마 국적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현재 수색 중이다. 구조대원들은 실종된 2명의 안전 헬멧을 발견했다. 소방 당국은 고무보트 2대와 잠수부 4명 등 구조대원 36명을 현장에 투입해



31일 갑작스런 폭우로 작업자들이 고립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자를 찾고 있다. 시야 확보가 어려워 초음파 탐지장비로 물속을 수색할 예정이다.

작업자들이 있던 수로는 직경 10m 규모의 터널 형태로 현재 빗물로 수심 3.3m의 물이 들어찬 상황이다.

소방 당국은 남은 2명이 신월과 화곡 배수구 쪽으로 대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현정 기자